

보도시점 2024. 2. 2.(금) 09:00 배포 2024. 2. 2.(금) 09:00

1월 소비자물가는 2.8% 상승하며 둔화 흐름 지속

-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.5% 상승

<'24.1월 주요 물가 지표>

(전년동월비, %)	총지수	식료품에너지제외	농산물·석유류제외	생활물가지수	신선식품지수
23.12월 → '24.1월	3.2 → 2.8	2.8 → 2.5	3.1 → 2.6	3.7 → 3.4	14.5 → 14.4

'24.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2.8%로 '23.12월(3.2%)보다 0.4%p 하락하였다. 과일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겨울철 한파 등 영향으로 농축수산물(전월비 2.9%, 전년동월비 8.0%) 가격이 상승하였으나, 석유류(전월비 △2.5%, 전년동월비 △5.0%) 및 가공식품(전월비 △0.4%, 전년동월비 3.2%)이 전월보다 하락하고, 개인서비스(전월비 0.5%, 전년동월비 3.5%) 가격 상승률도 줄어들면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다.

변동성이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하고 추세적인 물가를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전년동월비 2.5%(12월 2.8%)로 전월대비 0.3%p 하락하여 미국('23.12월 3.9%), EU('23.12월 4.0%) 등 주요국보다 큰 폭 낮은 수준이다. 가계의 지출 비중이 높은 품목들로 구성된 생활물가도 전년동월비 3.4%로 12월 3.7% 보다 0.3%p 하락하였다.

최근 국제유가가 상승*하고 겨울철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는 2%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어 국민들이 물가 안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. 특히, 설을 앞두고 설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수품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

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: ('23.8)86.5 (9)93.0 (10)89.8 (11)83.5 (12)77.3 ('24.1)78.9; (1.31)82.4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보현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최봉석 (bongseokchoi@korea.kr)
			사무관	성지현 (jeeeeee629@korea.kr)

1. 주요 내용

1 [소비자물가] 전년동월비 2.8% 상승('23.12월 3.2%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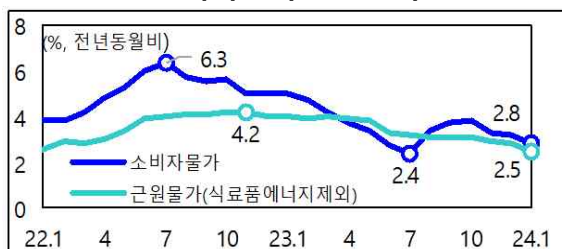
(%)	'23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
전년동월비	5.0	4.7	4.2	3.7	3.4	2.7	2.4	3.4	3.7	3.8	3.3	3.2	2.8
전월비	0.7	0.2	0.2	0.2	0.3	0.0	0.1	0.9	0.5	0.4	△0.5	0.0	0.4

- 농축수산물 가격은 과일가격 강세가 이어지고, 겨울철 한파 등의 영향으로 채소류 가격이 상승하면서 전년동월비 상승(7.7→8.0%)
 - * 전월비 변화율(%): <농산물> 5.6 (채소) 10.7 (과일) 4.3 <축산물> △0.6 <수산물> 0.7
- 1월 석유류 평균 가격은 전년동월비 하락세(△5.0%)를 유지했으나, 국제유가 상승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1월 중순부터 상승세 전환
 - * 국제유가(\$/B, 두바이유): ('23.8)86.5 (9)93.0 (10)89.8 (11)83.5 (12)77.3 ('24.1)78.9; (1.31)82.4
 - ** 휘발유 가격(원/l): ('23.8)1,716 (9)1,769 (10)1,775 (11)1,684 (12)1,600 ('24.1)1,569; (1.31)1,582
 - 경 유 가격(원/l): ('23.8)1,573 (9)1,666 (10)1,690 (11)1,628 (12)1,526 ('24.1)1,480; (1.31)1,488
- 가공식품 가격은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른 소주 유통가격 인하 등 영향으로 전월대비 하락(△0.4%)하면서 전년동월비도 둔화(2.1→1.8%)
 - * 가공식품(% 전년비): ('23.2/4)7.3 (7)6.6 (8)6.1 (9)5.7 (10)4.9 (11)5.1 (12)4.2 ('24.1)3.2
- 개인서비스 물가는 평년보다 낮은 전월비 상승폭을 보이며 둔화 흐름 지속
 - * 개인서비스(% 전년비): ('23.2/4)5.4 (7)4.4 (8)4.1 (9)4.1 (10)4.1 (11)4.0 (12)3.9 ('24.1)3.5
 - ↳ 1월 개인서비스 물가상승률(% 전월비): <직전 5년('19~'23년) 평균> 0.6 / <'24년> 0.5

품목별 전년동월비 상승률 및 기여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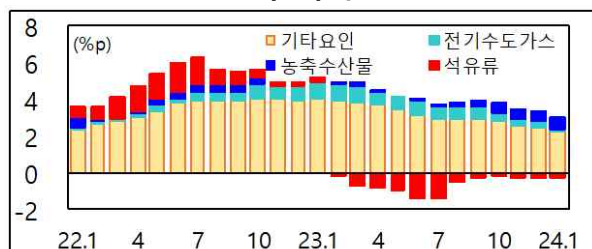
품목별	상승률(%)	전체	농 축 수산물	공업 제품	석유류	가공 식품	전기·가스·수도	집세	공공 서비스	개인 서비스	외식	외식 제외
'23.12월	전년동월비	3.2	7.7	2.1	△5.2	4.2	9.7	△0.1	1.9	3.9	4.4	3.5
	(기여도, %p)		0.6	0.7	△0.2	0.4	0.4	0.0	0.2	1.3	0.6	0.7
'24.1월	전년동월비	2.8	8.0	1.8	△5.0	3.2	5.0	△0.2	2.2	3.5	4.3	3.0
	(기여도, %p)		0.6	0.6	△0.2	0.3	0.2	△0.0	0.3	1.2	0.6	0.6

소비자물가·근원물가



* 자료: 통계청

물가 기여도



* 자료: 통계청

② [근원물가] 서비스 가격 상승률 둔화 등으로 전년동월비 2.5% 상승('23.12월 2.8%)

*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기준 근원물가로서, 계절적 요인이나 일시적 충격에 의한 변동분을 제외한 물가상승률로 458개 품목 중 식료품, 에너지 관련 품목을 제외한 309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3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
식료품 및 에너지제외	4.0	3.9	4.0	3.9	3.8	3.3	3.2	3.1	3.1	3.1	2.9	2.8	2.5
농산물 및 석유류제외	4.8	4.7	4.7	4.5	4.3	4.0	3.8	3.7	3.7	3.5	3.2	3.1	2.6

③ [생활물가]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동월비 3.4% 상승('23.12월 3.7%)

* 전체 품목 중 구입 빈도와 지출비중이 높아 가격변동에 민감한 144개 품목으로 작성

(전년동월비, %)	'23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
생활물가지수	5.8	5.3	4.3	3.7	3.3	2.5	2.0	3.9	4.4	4.5	3.9	3.7	3.4

④ [신선식품] 신선과실 가격 강세가 지속되고 한파 영향 등에 따른 신선채소 가격 상승으로 전년동월비 14.4% 상승('23.12월 14.5%)

* 신선어개(생선·해산물), 신선채소, 신선과실 등 계절·기상조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55개 품목

** 신선식품지수(전년동월비 % '23.12→'24.1월): (신선과실)26.1→28.5 (신선채소)12.0→8.9 (신선어개)1.4→2.0
(전 월 비 % '23.12→'24.1월): (신선과실)7.4→4.4 (신선채소)△3.1→10.8 (신선어개)1.1→0.9

(전년동월비, %)	'23.1	2	3	4	5	6	7	8	9	10	11	12	'24.1
신선식품지수	1.9	3.4	7.2	3.4	3.8	4.2	2.2	6.6	7.6	13.3	13.7	14.5	14.4

2. 평가 및 대응

□ [평가] 1월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하락하고, 가공식품 및 개인 서비스 가격 둔화 흐름이 이어지면서 2.8% 상승

- 식료품·에너지 등 변동성 큰 품목들을 제외하고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.5%로 둔화 흐름 지속(12월 2.8%)
- 근원물가는 미국^(12월)3.9%), 영국^(12월)5.2%)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

< (참고) 주요국 소비자물가/근원물가 >

	한국		미국	영국	독일	OECD	EU
	'24.1월	'23.12월	'23.12월	'23.12월	'23.12월	'23.11월	'23.12월
소비자물가(% 전년동월비)	2.8	3.2	3.4	4.2	3.8	5.4	3.4
근원물가(% 전년동월비)	2.5	2.8	3.9	5.2	3.5	6.3	4.0

□ [대응] 국제유가 상승, 겨울철 이상기후 등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2%대 물가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총력 대응

- 설 민생안정 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을 확대하는 등 성수품 가격을 비롯한 서민물가 안정 노력 지속